

엇갈리는 국고지원 여부... 법적 근거마련 vs 대학문제

(輿)

(기재부)

대학 등록금 반환

여당 의원들 등록금 반환 한 목소리
교육부, 예산마련 시간적 지원 방침
홍남기 장관, "국고지원 회의적"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연세인 총궐기 집회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성적평가제도 개선, 등록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대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등록금 반환 국고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교육 당국과 여당, 그리고 정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 당국이 등록금 환불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고 지원은 회의적이라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 관련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긴급 지시하면서 정부의 관련 예산 배정에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지만, 홍 부총리가 이에 제동을 걸며 정부 내에서도 이와 관련 논쟁을 겪을 조짐을 보인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두고 정부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이해찬 대표는 "당과 정부가 등록금

환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빨리 교육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전날 회의에서 말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도 회의가 끝난 뒤 "(3차 추경안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진행할지, 증액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등록금 환불 문제를 논의한 자리에서다.

교육부는 지원 방식이나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련 예산이 마련되면 대학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한 간접적인 학생 지원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8000억 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용도 제한을 풀어 각 대학이 장학금 지급 등에 쓸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에 '긴급지원금' 형태로 지원할 계획으로 3차 추경안에 19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국 대학생 약 200만명이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규모로다. 대학이 여기에 자체 예산을 매칭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정부 추경안에서 빠졌다.

교육부의 추경안에 편성한 금액의 활용 계획안은 최근 정부가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반환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교육부는 지난 3·4월 휴업한 유치원 교육비를 정부와 유치원이 절반씩 부담해 학부모들에게 돌려주게 했다.

여당 의원들의 등록금 환불 목소리는 전방위로 거세지지만, 기재부는 등록금 반환을 국고로 지원하는 데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후 관련 예산이 3차 추경안에 담기는 여부에 적잖은 진동이 예상되는 이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당의 이런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많은 대학이 아직 (등록금 반환)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면서 "대학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기재부는 코로나19로 대학생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대학생을 별도로 지원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단, 홍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대학'이라는 단서를 달고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남겨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등록금 반환에 나설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5일 건국대는 처음으로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겠다고 했다. 반환 액수는 1인당 40만원 정도다.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 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올해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면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학등록금 지원에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데 회의적인 의견을 낸 홍 부총리에 여당과 일부 야당이 예산 편성을 촉구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순천향대, 유희시설 내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대학내 산학연합단지 조성사업 선정
5년동안 매년 20억 내외 사업비 지원

순천향대가 교육부 '대학 내 산학연합협력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18일 순천향대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순천향대는 지자체 및 대학 대응자금을 포함해 총 104억원 내외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학 내 산학연합협력단지 조성사업'은 대학 내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대학내에 유치하고 대학이 산학연(産學研) 협력의 혁신 플랫폼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우수인력·기술과 기업의 혁신역량 간 공간적 연계를 통해 혁신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되



드론으로 본 순천향대 전경 /순천향대

는 산학연합협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순천향대는 '융합바이오(RGB) 사업화'를 통한 쾌속성장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의생명 바이오, 농수산식품 바이오 분야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 확보와 기술 기업 쾌속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전락으로 내세우고 있다.

산학연 협력 단지를 조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유희공간을 활용해 ▲융합바이오 기업 입주공간(약

7621㎡) ▲메이커 스페이스(약1198㎡) ▲커뮤니케이션센터(948㎡) 등을 조성 단계별로 지속해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유희부지를 활용해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배후단지와 연계해 산학연 협력 단지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순천향대 관계자는 "대학의 공간 재구성을 통해 산업 친화적으로 다양한 공간을 재구성해 현장실습, 공동연구 등 기반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학의 역할을 지역 전략산업과 적극 연계하고, 단지 주변 환경개선, 기업입주 지원 등 단지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지자체와 협업해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는 대학 입주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기술 수요 50개 기업에 대한 우선 입주를 지원하고, 사업성과를 활용한 배후단지 연계 100개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KB증권·한화솔루션 등 하계 인턴모집

KB증권 채용연계형 인턴 공채
한화솔루션 채용전제형 인턴 모집
네이버 2020년 하계 인턴십 채용
한국조폐공사 신입직원 공채 진행

KB증권, 한화솔루션 등이 하계 인턴을 모집 중이다.

18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KB증권이 2020년 채용연계형 인턴 공채를 진행 중이다. 모집분야는 ▲S&T ▲IB ▲리서치 ▲Wholesale ▲IT/디지털분야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이상이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021년 2월 이전), 2020년 7월부터 인턴 근무 가능자, 관련 규정상 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

한화솔루션에서 큐셀부문 2020년 하계 채용전제형 인턴을 모집 중이다. 모집파트는 ▲기획/PM ▲CSM/품질 ▲ESS개발 ▲HEMS개발 부문이다. 지원자격은 2020년 8월,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2020년 7, 8월

중 인턴십(6주 예정)이 가능한 자, 병역 필 또는 군 면제자(남성)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다.

NAVER Business Platform 역시 2020년 하계 인턴십 채용을 진행 중이다. 모집부문은 ▲엔지니어 ▲개발 ▲사업 ▲경영지원 각 부문 인턴이다. 전형절차는 서류접수 후 1차면접, 인성검사, 인턴십(6주), 2차면접, 신입 입사순으로 진행된다. 입사지원은 오는 21일까지 NAVER Business Platform(NBP)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국조폐공사는 오는 24일 17시까지 2020년도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전형은 ▲일반(행정사무, 행정기술 등) ▲R&D(전임 연구 각 분야) ▲IT(전산기술 각 분야) 전형 각 부문이다. 공통 지원자격은 우리 공사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2020.8.24 예정) 즉시 전일근무가 가능한 사람이다.

/이현진 기자

중앙대, 비대면 안면인식 출입·발열 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

'UBio-X Pro2' 설치 계획

중앙대는 20일 중앙대 100주년 기념관 고사장에서 치러지는 치러지는 TOPCIT 정기평가에서 '비대면 안면인식 출입 및 발열 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TOPCIT은 소프트웨어(SW)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테스트로 공공기관, 금융권, 대기업 등에서 인력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중앙대 비대면 안면인식 출입 및 발열 관리 시스템 모습 /중앙대

중앙대 다빈치SW교육원은 응시생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감염 예방 및 안전을 위해 고사장에 출입하는 학생들의 안면을 인식해 출입을 인증하고, 체온을 측정하는 'UBio-X Pro2'를 설치할 계획이다.

응시자들은 사전에 비대면 방문예약을 신청한 후, 당일 현장에서 출입 인증을 한다. 안면인식 시스템은 답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다양한 각도와 최대 2m 거리에서 워크스루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해 단시간에 다수의 인원을 인증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대학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구성원 아이디어 반영, 교육과정 개선

세종대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은 대학구성원들의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 대학혁신과 대학 가치 창출을 위해 이번 달 29일까지 대학혁신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인 'Creative Sejong IDEA'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콘텐츠 ▲글로벌 콘텐츠 ▲사회적 기여 콘텐츠 ▲자유

적 콘텐츠라는 혁신 3개 분야 및 자율 1개 분야로 대학 발전 실현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언택트) 교육과 행정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각 혁신 분야의 비대면 일상화 시책에 대해서 대학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이다.

세종대는 대학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안을 반영해 대학교육과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